



#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줍니다

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.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.  
(1 테살 5,5)



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한 남자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세요. 그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의 하인들에게 재산을 맡겼어요. 한 명에게는 다섯 동전을, 다른 한 명에게는 두 동전을, 마지막 한 명에게는 한 동전을 주었어요. . 주인이 길에 나간 동안 첫번째 하인은 다른 다섯 동전을 벌고 두번째 하인은 동전 2개를 더 벌었어요.



그런데 다른 세번째 하인은 받은 동전을 잃어 버릴까 두려워 그 동전을 땅속 에 묻어두었어요. 주인은 두배로 벌은 하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그들에게 두배로 되돌려 주었어요. 대신 그 세번째 하인에게는 받은 동전 하나를 돌려주면서 꾸짖으셨어요.



하느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어요. 선물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. 누구나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 열매를 맺고 빛을 낼 수 있어요. 초대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오로를 통해 이렇게 기억해요. “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예요.”



그리스의 아리안나의 경험담이에요. 방학 동안 저는 친구들과 함께 공예 작업을 했어요. 어느 날 오후, 우리는 바느질로 인형 만들기를 했어요. 저는 바느질을 잘하기에 아주 예쁜 인형을 만들었어요. 할머니가 제게 ‘너는 바느질에 재능이 있구나.’하고 칭찬 해 주셨어요.



저는 제 인형이 완성된 것에 너무 기뻐서 옆의 제 친구 안토넬라가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어요. 안토넬라는 바느질을 잘하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안토넬라와 그 옆의 빅토리아 것까지도 도와주었어요.



이렇게 제 재능은 크게 도움이 되었어요. 이제 우리는 세 개의 멋진 인형을 가지고 인형극을 할수 있어요. 저는 사랑을 실천한 후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았어요.